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2	제 [ ] 선택
----	------	---	----------

윤리와 사상

1. 그림의 가상 대화에서 스승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려야[恕] 한다.  
 ㄴ.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ㄷ. 도덕적 질서에서 벗어나 자연적 본성을 따라야 한다.  
 ㄹ. 친소(親疏)의 구분 없이 남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도덕 법칙은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強制)의 법칙이다.  
 ○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이들 둘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의무가 문제시 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① 자연적인 경향성에 따르는 것은 도덕적 의무인가?  
 ② 도덕 법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자율적 명령인가?  
 ③ 의무 의식에서 비롯되는 행위만이 도덕적인 행위인가?  
 ④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용성인가?  
 ⑤ 도덕적 행위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인가?

3.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문은 모든 성인들이 밟아 온 길이니, 과거의 모든 성인들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그 닦은 바에 따라 경지를 증득하였다.  
 을: 교(敎)를 닦으면서 관(觀)을 폐하거나, 관에 치우쳐 교를 버리는 것은 모두 편법에서 나온 것이다. 교종 승려도 내관(內觀)을 닦아야 하고, 선종 승려도 교리를 익혀야 한다.

- ① 갑: 돈오한 이후에는 단박에 습기(習氣)를 제거해야 한다.  
 ② 갑: 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문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을: 내적인 수행에서 벗어나 외적인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④ 을: 교종과 선종의 조화보다 종파의 독자성을 고수해야 한다.  
 ⑤ 갑, 을: 경전 공부와 선(禪) 수행을 병행하여 닦아야 한다.

4.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최고선은 신(神)이다.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을 넘어 삶의 체험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을: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논증될 수 있고, 초월적 진리는 계시와 신앙을 통해 알려진다.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최고선인 신과 하나 됨에 있다.

- ① 갑: 인간이 저지른 죄악은 자유 의지를 남용한 결과이다.  
 ② 갑: 신에 대한 사랑으로 신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을: 자연적 덕의 실천만으로도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다.  
 ④ 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은 영원법에 기초한다.  
 ⑤ 갑, 을: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신을 믿고 따라야 한다.

5.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서양 사람들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분별이 없다. 도무지 한울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고, 다만 자신의 몸만을 위하여 빌 따름이다.  
 을: 서양 사람들은 형이하에 밝고, 동양 사람들은 형이상에 밝다. 동양의 도(道)로써 서양의 기(器)를 행한다면 지구의 오대주는 평정할 것도 없다.

- ① 갑은 평등의 가치를 내세워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자 하였다.  
 ② 갑은 현세에서의 평안함보다 내세에서의 구원을 중시하였다.  
 ③ 을은 서양의 과학 기술을 사악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척하였다.  
 ④ 을은 민생 안정을 위해 서구의 학문과 종교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⑤ 갑, 을은 후천 개벽을 통해 정의가 실현된 사회를 지향하였다.

[6 ~ 7]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덕은 곧 지식이다. 무엇이 선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인하여 선을 행할 것이다.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무지하기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을: 덕 있는 사람은 덕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 앎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졌으며 실제로 그 앎을 행할 수 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망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다.

6.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 악한 행위는 선의지의 결핍으로부터 비롯된다.
- ② 갑: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은 개인의 감각적 경험이다.
- ③ 을: 인간은 선을 알면서도 자의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
- ④ 을: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덕의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⑤ 갑, 을: 행복한 삶을 위해 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7.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의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척도이다.

- ① 영혼을 수련하여 불변의 진리를 얻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이성을 지식과 도덕의 근원으로 보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③ 도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임을 간과한다.
- ④ 세속적 성공보다 도덕적 성찰을 중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규범이 존재함을 간과한다.

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네 가지 올바르게 살피야 할 진리가 있다. 중생의 현실은 고통과 괴로움이라 보는 것이요, 그 고통과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를 살피는 것이며,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 열반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는 일이요, 그 열반에 도달하는 길을 살피는 것이다.

<보 기>

ㄱ. 열반의 경지에서도 윤회(輪廻)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ㄴ. 집착과 애욕(愛慾)이 원인이 되어 괴로움이 발생한다.  
 ㄷ. 삼라만상은 고정됨 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변화한다.  
 ㄹ. 무명(無明)에 도달하기 위해 팔정도 수행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그림은 어느 고대 동양 사상가에 대한 학생의 탐구 장면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백성을 무지(無知)하고 무욕(無欲)하게 만들어야 한다.
- ② 군주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교체될 수 있다.
- ③ 예(禮)로써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 ④ 형법[法]과 술수[術]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도모해야 한다.
- ⑤ 정치의 유일한 목적은 백성의 물질적 풍요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10.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비록 감정[情]인 것은 같지만 그 유래[所從來]가 다른 점이 없지 않다. 그래서 옛사람들도 이것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것으로 말하였다고 생각한다. 사단의 유래가 이미 이(理)인데, 칠정의 유래가 기(氣)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을: 사단은 단지 이만 말한 것이고, 칠정은 이와 기를 합하여 말한 것이므로 두 가지 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이와 기가 서로 발(發)한다고 생각하였으니, 정을 두 갈래로 보는 것과 이기가 서로 발한다는 설을 주의하여 살피지 않을 수 없다.

- ① 갑: 사단과 칠정은 모두 순선한 도덕 감정이다.
- ② 갑: 사단은 기가 발하고 칠정은 이가 발한 것이다.
- ③ 을: 칠정은 수양을 통해 사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④ 을: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
- ⑤ 갑, 을: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주재하여 드러난 감정이다.

11.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덕과 악덕은 단지 이성을 통해서나 아니면 관념들의 비교를 통해서 발견될 수 없다. 우리가 덕과 악덕 사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덕과 악덕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이나 정서에 의해서임이 틀림없다.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 <보 기>
- ㄱ.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다.
  - ㄴ. 공감 능력을 발휘하여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
  - ㄷ. 선악은 사회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에 의해 구별된다.
  - ㄹ. 모든 감정을 통제하여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어떤 행위에 대해 한 쪽에는 쾌락의 총량을 더해 놓고 다른 쪽에는 고통의 총량을 더해 놓는다. 만일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있다면 그 행위에 선의 경향이 있는 것이고, 만일 고통 쪽이라면 악의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을: 다른 모든 일을 헤아릴 때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양이 많고 적음을 사소하게 만들 정도로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이 존재한다.

- <보 기>
- ㄱ. 갑: 쾌락에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다.
  - ㄴ. 갑: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 ㄷ. 을: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동기이다.
  - ㄹ. 갑, 을: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선한 행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道)는 만물을 낳고 덕(德)은 만물을 양육한다. 따라서 만물은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기니, 도의 높음과 덕의 귀함은 벼슬을 주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 그러할[自然] 뿐이다.

- ①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 학문에 전념해야 한다.
- ② 시비선악을 명확히 구분하여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 ③ 삶에 대한 숙고를 통해 인의의 도덕을 실천해야 한다.
- ④ 개인의 감각에 의존하여 만물의 근원을 깨우쳐야 한다.
- ⑤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14.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철학자들이 그들의 나라에 있어서 군주가 되거나, 아니면 현재 군주나 지배자로 불리는 이들이 참으로 그리고 충분히 지식 또는 지혜를 사랑하게 되지 않는 한, 인류에게 있어서 나쁜 것들의 종식은 없다.

학생	입장				
	갑	을	병	정	무
사물의 본질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			√	√
미(美)의 이데아는 현실의 미를 모방한 것이다.		√	√	√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	√			√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은 제약 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5.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한국 유교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인간의 본성[性]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함이 있는데, 이를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인간이 선해지는 것은 인위[偽]에 의한 것이다.

을: 인간의 본성으로 말하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한다. 권형(權衡)으로 말하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행사(行事)로 말하면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쉽다.

(나)

- ① A: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 ② A: 덕을 갖추기 위해 후천적 노력이 필요한가?
- ③ B: 하늘은 만물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인가?
- ④ B: 타고난 사단을 일상생활에서 확충해야 하는가?
- ⑤ C: 인간과 동물은 모두 영지의 기호를 지니는가?

16.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부자(父子) 사이에는 부자의 이치[理]가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효의 이치를 궁구하고 난 뒤에, 그 이치에 따라 효도를 해야 한다.  
 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心]이 없으면 효의 이치도 없다. 이치는 마음을 벗어나 바깥에 있지 않으며, 마음 바깥에 물(物)도 없다.

- ① 갑: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지식을 확충해야 한다.
- ② 갑: 마음 밖에 따로 어떠한 이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을: 도덕적 앎[知]과 도덕적 실천[行]은 본래 하나이다.
- ④ 을: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개별 사물에서 실현해야 한다.
- ⑤ 갑, 을: 인욕(人欲)을 극복하고 천리(天理)를 보존해야 한다.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의 뜻을 하나로 통일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들어라. 기라는 것은 텅 비움으로써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인다. 도(道)는 오로지 텅 비우는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심재(心齋)라고 한다.

- ①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 ② 의로운 행위를 반복하여 도덕적 기개를 함양해야 한다.
- ③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무위자연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구속하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한다.
- ⑤ 성왕이 제정한 예법을 통해 타고난 성품을 교화해야 한다.

18.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신은 곧 자연이며,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실체이다. 자연 안에는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결정되어 있다.



- ① 신의 은총을 통해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 ②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주어진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 ③ 자신의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켜 쾌락을 추구해야 합니다.
- ④ 이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의 인과 법칙을 인식해야 합니다.
- ⑤ 신의 계시와 율법에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19.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음이 생겨나는 까닭에 갖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부처를 모신 감실과 해골이 묻혀있는 무덤이 다르지 않다. 삼계(三界)가 오직 마음이요, 모든 현상이 또한 식(識)에 기초한다.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겠는가.

- ① 마음과 무관하게 일체의 현상이 생겨남을 알아야 한다.
- ② 중도(中道) 수행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③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회와 분리된 고행에 힘써야 한다.
- ④ 바른 수행을 통해서 불변하는 실체가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 ⑤ 깨끗함과 더러움의 근원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20.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쾌락은 삶의 목적이다. 참된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결핍이 없다면, 검소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p> <p>을: 쾌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 쾌락을 즐기고 나서 후회할 때와 쾌락을 멀리하고 누릴 만족을 비교하여 경계한다면, 어떠한 정념의 자극에도 동요치 않는 정신 상태를 가질 것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 기>

ㄱ. A: 행복한 삶을 위해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ㄴ. B: 공적인 생활을 멀리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  
 ㄷ. B: 마음의 평온을 위해 모든 정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ㄹ. C: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ㄹ, ㄷ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